

DKC 새가족을 위한

Davis 생활 정보



데이비스 한인교회

603 L Street, Davis, CA 95616

Tel: (530) 750-2753

모임 안내

주일 예배

영어 예배 (HLF)	9:30 am, 선교관	HLF 주일학교	9:30 am, 선교관
한어 1부 예배 (KM)	9:15 am, 믿음관	한어부 주일학교	11:50 am, 선교관
한어 2부 예배 (KM)	11:50 am, 믿음관	중고등부 예배	11:50 am, 믿음관

예수제자만들기	주) 1:30 pm, 교회	부인 성경공부	수) 10:00 am, 선교관
수요 예배	수) 7:00 pm, 믿음관	어린이 AWANA	수) 6:30 pm, 선교관
GOT 금요모임	금) 7:30 pm, UCD	금요 심야기도회	금) 7:30 pm, 믿음관
MSM 금요모임	금) 7:00 pm, UCD	새벽 예배	월-금) 5:45 am, 믿음관
중고등부 모임	토) 5:00 pm, 교회	토요 비전예배	토) 7:00 am, 선교관
여선교회 기도회	첫째토) 8:30 am, 교회	한국학교	금) 6:00 pm, 선교관

예수 제자 만들기 (JDM)

제자 훈련	화 7:00 am (남), 목 7:30 pm (남), 인도: 이은재 목사
주일 성경공부/일대일 양육	주일 10:30 am 주일 2:30 pm 인도: 조장
일대일 양육	목 7:30 pm (여) 인도: 조장
부인 성경공부	수 9:30 am 인도: 조장

교회를 섬기는 분들

담임 목사	이은재 목사 (joshlyfaith@gmail.com)
EM/중고등부 담당	Daniel Yoon 목사 (pastordanielyoon@sbcglobal.net)
사무 간사	노미숙 (daviskoreanchurch@gmail.com)
주일학교 담당	Mark Lee (leemarkw@yahoo.com)
영어부 간사	Andrew Kim (andrewmkam@gmail.com)

www.daviskoreanchurch.org

목차

머리말	1
1. 공항에서 데이비스까지	2
2. 데이비스라는 곳은?	3
3. 데이비스 도착 후 할 일: 학교 관련	4
4. 데이비스 도착 후 할 일: 생활 관련	8
5. 데이비스 학사 일정 요약	16
6. PAL Program	17
7. 식사 해결에 대해	17
8. 생활 정보 - 식료품 구하기	19
9. 생활 정보 - 대중 교통	23
10 생활 정보 - 기타	25
마치며	28

머리말

안녕하세요~ 먼저 데이비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저는 2013년 9월 이전까지는 새가족팀 청년부 담당, 그리고 9월 현재는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 “리엘” 입니다.

데이비스에 온지 1년 쯤이 지났을 무렵, 유용한 정보를 모두 한 문서에 모으고 제가 아는 것들을 추가하여 앞으로 데이비스로 오시는 분들이 이곳에 정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종합 가이드” 를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봄, 60쪽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를 완성하여 한인 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렸던 것을 시작으로 업데이트를 거듭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인 학생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셨다면 이미 제가 유학정보 게시판에 올려둔 가이드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데이비스 한인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데이비스 정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비스 정착 및 생활 정보를 추려낸 새가족용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학생용 가이드를 토대로 정보를 종합하여 2013년 9월 새로 완성한 것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데이비스에서의 새 생활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미혼인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가이드의 내용 자체가 대학원생 혹은 이 곳에 교환/방문학생으로 오는 학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부분이 좀 있으니 이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학생뿐 아니라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는 생활 정보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문서는 2013년 9월에 작성된 것이니 나중에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쇄 및 배포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라는 것을 고려하여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간추리기 전의 원본은 한인 학생회 홈페이지 <http://www.kgsaatucdavis.com> 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바로 보이는 “UC Davis Guide for Undergraduate Students/Graduate Students” 를 클릭하시거나, 상단 메뉴의 Board - Local Info 게시판에 있는 “리엘의 정착 가이드” 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아래 스크린샷의 박스 부분 참조). 전자는 웹페이지 형식으로 사진을 첨부하여 만든 것이고 후자는 워드 파일 형식입니다.

KGS @ UC Davis

HOME ABOUT US NOTICE **BOARD** CLUB SPONSORS CONTACT US FACEBOOK

로그인

RECENT POSTS

- 8월17일 데이비스-->SF공항 에...
- 네비게이션(Garmin) 팔아요~
- 8월 20일 SF공항 가실 분 연락...
- 8월15에 sf 가실분 연락 주세요
- 8월 5일 SF 공항 가실분

교수연구원 채용정보

전체 386건 | 교수 54건 | 연구원 118건

- 한세대학교 교수 초빙 ~8.4
- 김천과학대학교 간호학과 ~13.08.07
- 성균관대학교 지능시스템 ~13.08.06

NOTICE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창업 공모전

[한국무역협회] 제13회 대학(원)생 무역논문대회 개최 안내

메일 인증 관련 안내사항

[필독] KGS @ UCD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UC Davis Guide for Undergraduate Students/Graduate Students

JOB KOLIS

1. 공항에서 데이비스까지

이 가이드를 받는 여러분은 이미 데이비스에 와 계시니 별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데이비스에서 공항으로 갈 때도 아래의 셋 중 한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1) Davis Airporter

일종의 door-to-door service로 택시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목적지 주소를 알려주면 공항에서 그 주소까지 직접 데려다 주기 때문에 처음 오는 분들이나 짐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편리한 교통 수단입니다. 참고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새크라멘토에 내리시는 분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Airporter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어포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http://www.davisairporter.com>) 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반드시 컨펌 메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공항에 도착하신 후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컨펌 메일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공항에 도착했음을 알리면 안내원이 “어디어디로 가서 기다리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Davisairporter라고 적힌 파란색 밴이 도착합니다. 요금은 내릴 때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고,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을 도와주니 팁을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금 및 기타 규정을 확인할 수 있고, 데이비스에서 공항으로 갈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라이드

만약 친한 선배나 아는 분이 Davis에 있다면 라이드를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인학생회 홈페이지 Carpool 게시판에도 가끔 라이드 관련 글이 올라오니 체크해보시거나 라이드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데이비스까지 오는 가장 편한 방법이면서 어찌 보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아래에 소개할 대중 교통 역시 비용이 30불 가까이 드니까요.

(3) 대중 교통으로 오기

교통비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하지만 편도 30불 가까이 드니 개인 라이드와 비교하면 크게 절약되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우선 공항에서 Airtrack을 통해 바로 연결된 Bart라는 전철을 타고 Richmond 역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Sacramento 방향으로 가는 Amtrak 열차로 갈아타시고 Davis 역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싸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Amtrak 역에서 자신의 집이 너무 멀어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다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Richmond 주변은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저녁이나 밤에 도착하신다면 될 수 있으면 이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새크라멘토 공항에서 데이비스로 오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물론 Airporter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Yolobus 42B번(A번 아님)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Yolobus는 공항 바로 앞의 버스 승강장 (Yolobus라는 팻말이 붙은 것이 아니라 Public Transit이라고 써 있습니다)에 한 시간 단위로 도착하는데, 요금은 2불밖에 되지 않고 Woodland를 거쳐 데이비스까지 옵니다. 노선도를 보고 자신의 집에 가장 가까운 역에서 내리면 되니 그리 불편한 점도 없고요.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이리저리 돌아오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립니다.

2. 데이비스라는 곳은?

데이비스는 고층 빌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조용하고 한적하고 공기 좋은 시골 마을입니다. 여러 상점들은 다운타운에 모여 있고 그 외의 지역은 거의 house나 apartment, 혹은 공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도시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지 않고 지루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활동하게 되는 범위가 다운타운, 캠퍼스, 그리고 자신의 집 정도밖에 되지 않아 데이비스의 규모를 과소평가하기 쉽지만 의외로



Davis는 꽤 넓습니다. Davis에 처음 도착하시면 수많은 자전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개강 후에는 캠퍼스 내의 도로 전체가 자전거로 뒤덮인다 할 만큼 자전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자전거의 도시 Davis에서 엄청난 양의 자전거 교통은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학교 캠퍼스 역시 꽤 넓고 시 전체가 이 학교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유학 준비시절 애용했던 유학 가이드북에 의하면 미국의 모든 대학을 여러 기준 (재정 지원 상황, 연구 수준, 주변 치안 상황과 주택 상황 등)으로 평가했을 때 가장 약점이 없는 대학 두 군데 중 하나가 바로 이 UC Davis라고 합니다. 그만큼 Davis는 미국 내에서도 드물게 강력 범죄가 없고 안전한 곳입니다. 물론 “데이비스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범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미국의 다른 곳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다른 대도시와 달리 밤 늦게 돌아다녀도 큰 문제가 없고, 이미 안전한 곳임에도 경찰들이 자주 순찰하며 돌아다니기 때문에 강력 범죄라든지 치안 문제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제가 Davis에서 지내면서 유일하게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더운 날씨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연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여름에는 100도 (섭씨 40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름에는 대부분 하늘에 구름이 한 점도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반면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눈은커녕 비만 지겹게 보

게 됩니다. 다행히도 햇살만 굉장히 강할 뿐 습하지 않아서 땀은 많이 나지 않고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고층 빌딩이 없다 보니 그늘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강한 햇살에 대비해서 선글라스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4월부터는 반팔 티를 준비하셔야 하고, 10월까지도 반팔 차림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라고 해도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쌀쌀한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두꺼운 코트를 입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단, 바깥 날씨가 별로 춥지 않다고 해도 미국의 집들은 한국만큼 보일러 난방이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집 안에서는 보통 춥다고 느끼시게 됩니다. 이를 대비해 히터나 전기장판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데이비스가 시골 마을이라 살기 불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상점이나 레스토랑들이 다운타운에 다 모여있기 때문이죠. 보통 다운타운이라 함은 B에서 G street 사이, 그리고 1번가에서 5번가의 사이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식료품을 살 수 있는 큰 마트들도 몇 개 있고요 (다운타운은 공간이 좁아서 없고 좀 외곽으로 나가야 있습니다. 이진 다음에 8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놀 거리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이고, 차로 30분 거리에 새크라멘토가 있습니다. 그 외 인접한 도시로는 Woodland나 Dixon, Vacaville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Davis 내에는 대중 교통이 그리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인접 도시들은 새크라멘토를 제외하고는 차가 없이 방문하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Davis의 대중 교통에 대해서는 9장에서 몰아서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3. 데이비스 도착 후 할 일: 학교 관련

UC Davis는 쿼터제이기 때문에 가을 학기 개강이 25일 이후로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개강 전까지 시간은 충분하니 되도록이면 아래의 일들을 개강 전에 모두 끝내시기를 권합니다.

(1) 캠퍼스 지도 얻기

3번 스트리트를 따라서 서쪽으로 걸어서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큰 버스 정류장처럼 생긴 곳이 있는데 그 중앙에 visitor info (①)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캠퍼스 지도를 얻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지도를 얻으신 곳에서 길 건너편으로 보이는 건물이 Memorial Union (MU)와 Freeborn Hall (공연장처럼 생긴 곳) 입니다. MU 건물 안에 들어가

셔도 visitor info가 있는데 그 곳에서 지도를 얻으셔도 됩니다. 또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Davis Bike Map은 데이비스 지도로 쓰기에 아주 좋으니 같이 얻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대학원생 - 과사무실, SISS

각 과 건물에 있는 과사무실로 가서 새로 온 대학원생임을 알리고 필요한 안내 및 책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SISS (Servi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는 말 그대로 우리와 같은 international student들과 관련된 여러 일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여기가 큰 건물이 아니라 University House라는 작은 집처럼 생긴 곳에 있어서 처음에 찾아가기 쉽지 않는데 Shields Library와



West/East Quad 사잇길인 One Shields Avenue를 따라가시면 Olson Hall 건너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새로 왔음을 알리고 안내를 받으세요. 각종 지도와 책자를 주고, 오리엔테이션 스케줄에 대해 알려줄 겁니다. 참고로 나중에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다녀오거나 미국 외의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출국 전에 SISS에서 I-20에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학부 방문 학생 - GSP Office

방문학생 여러분은 특정 과가 아니라 UCD Extension이 됩니다. 즉, 대부분의 행정적인 일은 Extension에 있는 GSP (Global Study Program) 오피스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건물 주소는 1333 Research Park Drive로 캠퍼스 남쪽에 있습니다. GSP Office에 I-20를 가져가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대학원생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해외를 여행하실 경우 반드시 이 곳에 와서 I-20에 싸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4) 학생증 발급

2010년을 기점으로 학생증이 AggieCard라 부르는 새로운 카드로 바뀌었고 ID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카드에 meal plan을 충전한다든지 애기 캐시를 충전해서 쓴다든지 U.S. Bank라는 은행의 체크 카드 대용으로 쓸 수도 있는 등 여러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애기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자신의 사진을 등록한 후 confirmation mail을 받고 Memorial Union 161A호에 있는 AggieCard Office로 가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사진 등록 링크 및 기타 애기 카드 관련 설명은 <http://registrar.ucdavis.edu/html/photoid.html> 로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5) Shields Library, 그리고 프린터에 대해

캠퍼스 내에 여러 도서관들이 있지만 이 Shields Library가 main library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자주 가시게 될 곳입니다. 크게 두 건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도서관 본관이고 다른 하나는 24시간 스터디룸으로 학생증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도서관에 가서서 대출 데스크에 처음 온 학생이라고 말하고 학생증을 주면 도서관 전산 시스템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 줍니다. 이 때부터 학생증으로 대출 데스크에



서 책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층에 컴퓨터들이 많이 있는데, language pack이 설치되어 있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컴퓨터도 있으니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그 컴퓨터에서는 말 그대로 인터넷만 가능하고 파일을 받거나 문서를 읽는 등의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도서관에서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Repro-graphics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의 information desk와 컴퓨터들이 몰려있는 곳 주변을 보면 좁은 통로에 화폐 교환기와 paystation이라고 적힌 검은색 기계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reprographics 카드를 사고 돈을 충전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처음 사실 때는 0.5불을 기본으로 내야 하고 그 후에는 1불 단위로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를 하실 때는 도서관 내의 컴퓨터에서 인쇄를 누르면 무슨 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 자신의 카드 번호 다섯 자리를 입력하시고 password는 비워둔 채 확인을 누르면 job이 전송되면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information desk 양 옆에 보이는 복사기처럼 생긴 기계에 가서서 카드를 굽으시면 그 기계에서 인



쇄되어 나옵니다. 물론 그 카드로 복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http://www.lib.ucdavis.edu/ul/services/copyprint.php> 이 링크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UC Davis의 정식 학생이 아닌 분들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학생이라도 방학에 computer lab이 닫는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computer lab을 이용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작은 컴퓨터 랩이 하나 보이는데, 이 랩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UC Davis 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워드 문서도 읽을 수 있고 양면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 편리한 곳입니다. 한 장 프린트하는데 11센트이지만 양면 인쇄 역시 1장으로 치기 때문에 위의 reprographics 카드보다 오히려 경제적인 셈입니다. 그리고 일정 장수 (few sheet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되어 있음)까지는 무료로 프린트 가능합니다. 컴퓨터 랩에서의 프린팅에 대해서는 <http://clm.ucdavis.edu/rooms/printin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팅 비용은 나중에 mybill에 청구되어 나옵니다.



(6) Dutton Hall - 등록금 납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http://mybill.ucdavis.edu> 이곳에 자신이 내야 할 등록금에 관한 bill이 발행되어 나옵니다. 이 곳을 굳이 자주 체크하실 필요 없이 새 bill이 발행될 경우 메일로 공지가 날아옵니다. 등록금을 확인하신 후에 Dutton Hall 1층에 가시면 납부하실 수 있고,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단, TA, RA 또는 기타 재정 지원을 받는 분들은 무작정 내지 마시고, bill을 확인한 후 반드시 과사무실에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등록금은 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내야 하는 액수는 bill에 나온 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학부 방문학생인 경우 여기 오기 전에 UC Davis에 할인된 등록금인 쿼터당 4000불 정도를 납부하게 되며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납부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후 GSP 담당자가 각 학교 국제 교류처로 연락해서 각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7) SSN 신청

SSN은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든 (TA나 RA 포함)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시게 될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J-2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신 분은 당연히 안 되고, F1을 가진 학생이라도 학교로부터의 employment letter가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tax 보고용으로 SSN 대신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SS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office까지 직접 가야 했지만 요즘

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9월 20일경에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학교로 직접 출장을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 출장 날짜가 언제인지 SISS에 미리 물어보시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I-20, employment letter입니다. Social Security Card는 약 한달 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데, 만약을 위해 카드는 집에 두시고 번호만 외우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SSN 신청은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학과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학부 방문학생 - 수강신청 상담

수강 과목을 정할 때는 GSP office에서 상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과목을 drop 할 때도 이 GSP office를 거쳐야 하죠. 또한 여기서 ESL 수업 수강 여부도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 기준은 토플 점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ESL 수업 중에서 communication이나 영어 영문학 같은 과목들은 Subject A라는 writing 시험을 통과한 학생만 수강 가능합니다. 제2 외국어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 역시 placement exam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ESL을 듣게 된다고 하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Writing이나 Listening 관련 수업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 가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풀코스(Intensive English)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다른 것 같더군요.

(9) 학부 방문학생 - 수업 교과서 구하기

이 곳에서 새 책을 사려면 엄청난 돈을 내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싸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사셔야 합니다. Memorial Union 건물에 있는 서점 지하에 가면 모든 과목의 교재를 팔고 있고 친절하게도 새 책과 중고책의 가격까지 적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서점의 used를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마존에서 주문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서점에서 새 책 사는 건 거의 100% 손해). 그러니 가격을 잘 따져보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 서점에는 쿼터가 끝난 후 자신이 사용한 책을 되팔 수 있는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되팔면서 받게 되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쓸 일이 없는 책이라면 한국에 돌아갈 때 짐으로 만드는 것 보다 팔고 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학원생의 영어 수업이나 수강 신청에 대한 정보는 이곳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한인 학생회 홈페이지의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데이비스 도착 후 할 일: 생활 관련

학교 관련 일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Davis에 정착하는 과정이겠지요? 여기서는 이러한 생활 관련 정보들을 모아 봤습니다.

(1) 은행 계좌 만들기

여권과 I-20를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Davis에는 Bank of America, Wells Fargo, US Bank 등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저는 Bank of America에 계좌를 만들었으니 이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Bank of America는 4번가와 E street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새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창구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signup sheet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직원이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계좌를 열면 saving과 checking의 두 종류 계좌가 열리게 되는데 checking은 나중에 받게 될 체크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돈이 나가는 계좌입니다. Saving은 말 그대로 돈을 보관해두는 계좌인데, 여기서 한 달에 3번 이상 돈을 인출할 경우 수수료가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checking에 많은 돈을 넣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checking과 saving 사이의 transfer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계좌 등록이 끝나면 임시 체크 카드를 주고, 정식 체크 카드는 일주일쯤 후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주는 check도 꼭 가지고 계세요.

참고 1- Debit Card: Debit Card는 은행 계좌를 열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카드로 흔히 말하는 체크 카드 혹은 직불 카드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 debit 카드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물건을 살 때 현금을 들고 다니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교내는 물론 웬만한 상점에서 debit 카드는 다 받습니다 (단, 드물기는 하지만 debit으로 결제할 수 있는 minimum을 정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Debit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신의 checking account에서 바로 돈이 빠져 나갑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실 때 pin number를 입력해야 하지만 가끔 이 pin number 없이 그냥 받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MU나 Silo) 카드를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참고 2 - Verified by Visa: Bank of America를 이용하실 경우 체크 카드를 Visa 카드로 받으실 겁니다. 자신의 카드를 Verified by Visa에 등록하시면 세계의 어느 쇼핑몰에서도 전자 결제 시 사용 가능하고, 한국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2) 짐 찾기

한국의 우체국에서 짐을 부치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집이나 office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짐이 도착하는 경우 다시 배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 찾아가라는 내용의 엽서 비슷한 것만 넣어놓습니다. 즉, 자신이 우체국에 직접 가서 찾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체국에 방문해서 직접 찾아올 수도 있고 재배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온라인으로도 재배달 요청 가능). 우체국은 5번가와 Pole Line이 만나는 교차로에 있습니다. 짐을 찾을 때는 자신이 받은 엽서와 아이디 (여권)가 필요합니다.

(3) 자전거 구하기

데이비스에서 자전거는 발과도 같습니다. 학교 갈 때는 물론 장을 보러 가거나 데이비스 내의 어디를 갈 때도 자가용처럼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자전거가 있으면 정착 관련된 여러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편리하니 될 수 있으면 빨리 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디서 구할까?



바이크 샵에 가 보면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이 “너무 비싸다”일 겁니다. 새 자전거는 아무리 싸도 300불이 넘는 경우가 많고, 자전거와 함께 반드시 사야 하는 잠금 장치나 라이트 등의 값을 합치면 400불은 가볍게 넘습니다. 그러니 데이비스에 얼마 계시지 않을 분이라면 새 자전거보다는 중고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자전거는 한인학생회 홈페이지의 사고팔기 게시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http://sacramento.craigslist.org> 이

사이트에서 여러 중고 관련 광고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학교 내에 있는 Bike Barn (Silo와 화학과 건물 사이에 있음) 이나 Davis Bike Exchange (L Street와 5번가의 교차 지점에서 찾을 수 있음) 등의 바이크 샵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전거를 살 때 같이 사야 하는 것들

자전거와 함께 사야 하는 것으로는 라이트 (후방 라이트는 옵션이지만 전방 라이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밤에 자전거를 탈 때 이걸 켜지 않고 다니면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바구니, 바퀴 주위에 다는, 잠금 장치, 체인에 먹여야 하는 오일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다른 것은 몰라도 전방 라이트와 잠금 장치는 필수입니다.

데이비스에 있는 바이크 샵들

새 자전거를 사시려면 다음의 바이크 샵들을 알아보세요.

- **Ken's Bike & Ski:** 제가 자전거를 샀던 곳으로 몸에 맞게 튜닝을 해 주어 정말 좋은 곳입니다. G Street와 6~8번가가 만나는 부근에 여러 상점이 몰려 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 렌탈샵으로 변신하는 곳입니다.
- **B&L Bikeshop:** 3번가에서 E와 F 스트리트 사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가장 오래된 바이크 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Davis Wheelworks:** 역시 다운타운에 있는 바이크샵으로 F Street와 3번가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 **Freewheeler:** F Street와 2번가의 교차 지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이 좋은 바이크샵입니다.
- **타겟 혹은 월마트에서 구하기:** 월마트에서도 자전거를 팝니다. 그것도 100불이 넘지 않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요. 선택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고 가격이 싼 만큼 내구력이 떨어지고 몸에 맞지 않으면 고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웬만한 중고 자전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1년만 머무실 분들에게는 월마트가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월마트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5)번 항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아래에 소개 드릴 Target에 가셔도 됩니다.

(중요) 자전거 탈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법규들

자전거를 탈 때 주의하실 점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전거 역시 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따르는 교통 법규를 같이 따라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이 **stop sign**으로, 교차로에 stop sign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은 멈춘 후 (**멈추는 척 하다가 다시 가는 건 안 됩니다.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좌우를 살피고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차가 한 대도 없더라도 우선은 멈춰야 하고, 차들이 있다면 우선 멈춘 후 교차로에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통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top sign이 있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가다가 (주로 대중 멈추는 척 하다가) 경찰관에게 걸리면 별로 재미 없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 당연한 말이지만 신호 위반은 절대 안 됩니다.
- 자전거 역시 도로에서 우측 통행입니다. 역주행 하지 맙시다. 걸리면 마찬가지로 벌금입니다.
- 인도에서는 절대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타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 자전거에는 깜빡이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는 손을 좌우 옆으로 뻗어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두워지면 반드시 **전방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역시 안 켜고 가다 걸리면 벌금입니다.
- 보통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있는 bike lane을 따라가지만 bike lane이 없다면 최대한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좌, 우회전을 해야 할 때는 차선으로 들어가거나 좌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좌우회전 차선은 자전거 역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 자전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전거라고 해서 우습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잘못하면 정말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를 탈 때 양쪽 귀에 모두 이어폰을 꽂고 타면 안 됩니다. 경찰관에게 걸리면 지적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 쪽에만 꽂고 타는 것은 괜찮습니다.

(4) 핸드폰

미국에 도착하신 후 며칠 동안은 핸드폰이 없어서 불편하실 겁니다. 미국에도 여러 핸드폰 회사가 있는데 보통 AT&T나 Verizon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AT&T에서는 SSN (사회 보장 번호)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 (contract, 약정) 폰을

개통하려면 500불의 보증금이 필요하며 SSN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credit history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매달 요금을 제대로 낸다면 1년 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절대 늦게 낼 일이 없어서 편합니다). 버라이존은 약정폰을 만들 때 마찬가지로 SSN을 요구하며 SSN이 없으면 400불의 보증금을 내고 개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환학생 혹은 1년 이내로 머무시는 분들인 경우 약정 기간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약정폰과는 성격이 다른 선불폰 (prepaid)이 있는데 선불폰은 말 그대로 돈을 먼저 충전하고 쓸 때마다 잔액에서 깎이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싸구려 선불폰을 1년간 쓰다 귀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늘어난 현재에는 옛날 이야기가 된 듯 합니다.

스마트폰을 쓰시는 경우 미국에서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 쓰던 스마트폰을 미국에 가지고 나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컨트리 락이 걸려 있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니 특히 KT에서 2010년이나 그 이전에 나온 모델이라면 통신사에 확인해서 미리 컨트리 락을 해제해야 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미국에서 개통하면 약정 기간이 2년이지만 학부생 여러분은 대부분 1년 이내로 머물 것이니 한국의 스마트폰을 꼭 미국에서 쓰고 싶다면 컨트리 락이 해제된 폰에 미국 선불 USIM 카드를 꽂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생활 용품 및 가구 구하기

구하신 아파트가 furnished가 아닌 이상, 그리고 다른 분에게 생활 용품 전반을 양도 받은 분이 아닌 이상 집 살림을 차리는데 시간과 돈을 좀 들이셔야 할 겁니다. 여기서는 가구나 생활 용품을 구하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싼 가구들 말고 저렴한 가구를 구할 수 있는 곳 위주로요.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차를 가진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차를 렌트 하시는 것이 몇 배 편합니다. 렌터카에 대해서는 (6)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Matthew's Mattress:** 제가 침대를 살 때 이용했던 곳입니다. 침대를 고르면 그 날 바로 배달을 해 주고 프레임 세팅까지 확실히 해 줍니다. 위치는 8번가에서 M 스트리트와 Pole Line 사이에 있는 작은 market place에 있습니다. 9월 경이 되면 침대를 구입하러 온 신입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매트리스라는 물건은 나중에 귀국하실 때 가장 처리하기 곤란한 물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래 계실 분이 아니면 300불이 넘는 새 매트리스를 사는 것은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남이 쓰던 매트리스는 쓰기 싫으시다거나 잠자리는 편해야



한다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요. 혹은 큰 매트리스 말고 작은 것을 쓰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작은 매트리스는 아래의 IKEA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Ace Houseware:** 고급 가구들도 많아 가격이 별로 싼 편은 아니지만 간단한 책상이나 책상, 식탁 정도를 살 때 이용하시면 적당합니다. 배달도 수수료를 지불하면 가능하며 위치는 3번가와 G 스트리트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 **Walmart:** 불행히도 Davis에는 월마트가 없고 가까운 Woodland나 Dixon, Sacramento로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주방 식기들을 비롯한 생활 용품들도 싸게 구할 수 있고, 학생들이 쓰기에 적당한 조립식 책상과 책장, 책꽂이, 테이블 등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Dixon: 235 E Dorset Dr, Dixon, CA 95620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Woodland: 1720 E Main St, Woodland, CA 95776 (이 곳은 대중 교통으로도 갈 수 있지만 대중 교통 이용은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West Sacramento: 755 Riverpoint Ct, West Sacramento, CA 95605 (이 곳은 아래에 소개드릴 IKEA의 바로 옆으로, 다른 월마트에 비해 식품 코너의 규모가 매우 큼니다.)

Sacramento: 3661 Truxel Rd, Sacramento, CA 95834

Vacaville: 1501 Helen Power Dr, Vacaville, CA 95687 (이 곳은 아래에 설명드릴 쇼핑 천국 Vacaville을 다녀오실 때 들르시면 편합니다.)

Sacramento: 3460 El Camino Ave, Sacramento, CA 95821 (이 곳은 역시 아래에서 설명드릴 A+치과와 매우 가깝습니다. 역시 규모가 상당히 큰 2층짜리 월마트.)

Rancho Cordova: 10655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670 (위의 월마트들에 비하면 거리가 꽤 멀지만 여기서 소개드리는 이유는 새크라멘토의 한인 마트를 갈 때 같이 묶어 다녀오시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 **IKEA:** IKEA는 가구, 주방 용품, 침구류, 인테리어 소품 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Davis에서 가까운 IKEA 매장은 West Sacramento에 있습니다 (주소가 700 IKEA Court라고 하네요). 대중 교통으로 찾아가기는 쥘끄러운 곳이니 차를 빌려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Target:** 2009년 10월에 데이비스에도 타겟이 하나 오픈했습니다. 위치는 2nd Street를 따라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Mace Blvd와 만나기

직전에 나옵니다. 물론 가구를 사 오시려면 차가 있는 게 더 좋겠지만 저렴한 생활 용품들을 살 때는 버스 혹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오실 수도 있는 곳입니다 (단, 자전거로 다녀오기 그리 만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처음 오셔서 살림살이 구하실 때 꼭 가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월마트보다 이 곳을 선호합니다. 2012년 1월부터는 1시간 연장 영업도 시작했습니다.

- **UCD Bargain Barn:** 위에 언급한 Bike Barn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중고 물품들을 싸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이 곳 물건들은 집 보다는 오피스에 더 어울리는 것들이 많네요. 그래도 데이비스에 잠깐 계실 분들에게는 나쁠 것 없는 선택입니다. 위치는 LaRue Road에서 47A번 parking lot 건너편인데 처음에 찾기는 쉽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 **Craigslist에서 중고 물품 구하기:** Craigslist (<http://sacramento.craigslist.org>) 홈페이지에는 엄청난 수의 중고 물품 거래 광고가 매일 올라옵니다. 보통 데이비스에서 중고 물품을 구할 때는 Kgsa 홈페이지와 함께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6) 차 렌트하기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받아오신 분이라면 가구나 생활 용품을 사서 운반하는데 차를 빌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 **Avis:** 주소는 1700 Olive Dr로 Avis와 Budget 두 회사가 같이 있습니다. 소형 차를 빌리실 때 좋고, 좀 불안하긴 하지만 보험 커버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40불 대에 빌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종 차가 매진될 때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권과 국제 운전 면허증 (물론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이 있다면 이것 하나로 가능), 그리고 신용 카드가 필요합니다.
- **U-Haul:** North Davis에 위치한 Stonegate Self Storage라는 곳에 가면 이 U-Haul 트럭을 빌릴 수 있습니다. 위치는 Covell Blvd를 따라 서쪽으로 계속 가시면 Lake Blvd 조금 못 가서 있습니다 (2772 West Covell Blvd).
(주의: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는 U-Haul 트럭을 빌릴 수 없습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만 있으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이 있는 다른 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Enterprise (5055 Chiles Road)로 가서 빌리셔야 합니다.)

(7) 운전 면허 (DMV에 대해)

운전 면허 역시 급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하시면 좋습니다 (SSN이 없어도 취득 가능). 미국에서 운전을 하실 분이라면 당연히 필요하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운전 면허증은 여권보다 ID로 쓰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는 1년만 운전이 가능합니다(단, 운전시 한국 운전 면허증과 여권도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운전 면허 시험뿐 아니라 자동차에 관한 모든 행정 처리를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에서 하게 됩니다. Davis의 DMV는 5번가와 Pole Line이 만나는 지점 (우체국의 맞은 편)에 있습니다. DMV에서 처리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낮에 방문하신다면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에 가도 사람들이 DMV 열기 전부터 줄을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필기 시험:** 먼저, DMV 내에 비치된 한국어로 된 무료 안내 책자를 가져가서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달리 필기 시험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보게 됩니다. 창구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여권과 국제 운전 면허증, I-20, I-94등도 같이 가져가셔야만 신청이 됩니다. 시험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구석에 있는 창구로 가라고 안내해 주는데 그 곳이 필기시험 전용 창구입니다. 줄 서서 기다리다가 차례가 오면 사진을 찍고 시험지와 연필을 줄 겁니다 (한국어로 된 시험지를 달라고 하세요). 시험을 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채점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 일반 6개, 표지판 문제 2개까지 틀리면 합격으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합격하고 나면 임시 운전 면허증을 주고, 여기 적힌 번호로 주행 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행 시험:**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DMV를 직접 방문하여 주행 시험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등록한 날짜에 해당 DMV에 20분 정도 미리 가서 도착을 알리고 기다리세요. 우리 나라처럼 시험장에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차를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자신의 차가 없다면 렌터카를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단,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하고 보험 증명서 필수).

주행 시험 출발 장소에 자신의 차를 주차시키고 기다리면 시험 감독관이 와서 출발 전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는 항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 Arm signals (좌회전, 우회전, 정지 수신호를 해 보라고 합니다), Windshield wiper (와이퍼를 움직이는 장치의 위치를 묻습니다), Headlight (헤드라이트를 켜는 장치의 위치를 묻습니다), Defroster (성에 제거 버튼의 위치를 묻습니다), Horn (경적을 울려보도록 합니다), Right/Left turn signals (좌우측 깜빡이를 켜보라고 합니다), Emergency flasher (비상 깜빡이를 켜 보라고 합니다), Emergency brake (비상 브레이크, 즉 사이드 브레이크를 가리키면 됩니다), Brake (브레이크를 밟아보라고 하고 뒤에서 브레이크등이 켜지는지 체크합니다). 여기서 실수를 3번 이상 하면 탈락입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출발하게 되는데, 일단 출발하면 감독관에게 어떤 질문도 할 수 없고 감독관의 지시대로만 해야 합니다. 평가지에 표시된 항목 중 실수를 15번 이상 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critical mistake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즉시 불합격입니다. Critical mistake는 신호 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감독관 지시 불이행, 충돌 사고 등의 큰 잘못을 말합니다. 이런 잘못들은 정신을 웬만큼 놓지 않는 이상 저지를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서는 주로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을 꼽아 봤습니다.

1. 차선 변경 혹은 좌우회전을 할 때 사각 지대를 확인하지 않음. 백미러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사각 지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2. Stop sign에서 정지선 미준수. 차체가 완전히 정지선 안 쪽에 있어야 합니다.
 3. 앞차와의 간격. 자신도 모르게 앞 차에 바짝 붙기 쉬우니 주의합니다.
 4. Bike Lane이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을 지시할 때는 bike lane이 점선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먼저 bike lane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그냥 자동차 차선에서 바로 우회전 하면 mistake로 체크됩니다.
 5. Pull over (한적한 도로변에 잠시 주차) 후 출발할 때, 주변이 한적하기 때문에 좌측 깜빡이를 켜는 것이나 주위를 살피는 것을 잊고 그냥 출발해버리기 쉽습니다.
- 시험이 끝나면 평가지를 주면서 약간의 코멘트도 해 줍니다. 합격하셨다면 종이에 인쇄된 임시 면허 (60일 유효)를 받을 수 있고, 곧 정식 면허가 우편으로 옵니다.

5. 데이비스 학사 일정 요약

UC Davis는 한국의 대학교와 달리 쿼터제를 실행하기 때문에 쿼터제 스케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는 데이비스의 1년 학사 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 가을 쿼터: 한국과 달리 새 학년의 시작은 봄이 아니라 가을 학기입니다. 보통 개강은 9월 25일 경이며 12월 둘째 주에 기말 고사를 보고 종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 학기 개강 전까지 3주 정도의 방학 (크리스마스와 신년 포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쿼터간 break 중에서는 가장 긴 기간입니다. 쿼터제는 한 학기가 짧고 1년에 세 쿼터라 대부분의 수업들의 진도가 한국에 비해 느린 편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방학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여름 학기까지 듣는다면 말이죠.
- 겨울 쿼터: 보통 1월 초에 개강하고 3월 셋째 주쯤에 종강합니다. 3월 중에 서머 타임이 시작되어 한 시간 빨리 일어나야 하는 날이 끼어 있어 괴롭기도 합니다. 가을 때와는 달리 방학은 매정하게도 딱 1주일입니다.
- 봄 쿼터: 3월 말에 개강하여 6월 둘째 주에 기말 고사를 보고 종강합니다. 한국에서 1학기나 2학기가 정식 학기이듯이 쿼터제에서 정식 쿼터는 가을, 겨울, 봄이 전부입니다. 봄 쿼터 종강 후 역시 딱 1주일 방학이 있고 바로 여름 쿼터 (summer session이라 부름)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이 봄 쿼터 중에 UCD 캠퍼스에서 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인 Picnic Day (주로 4월 중순)가 있습니다.
- 여름 쿼터: 서머 세션은 정식 쿼터가 아니고 한국의 계절 학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망자에 한해 수업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서머 세션은 session 1과 2 이렇게 두 기간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서머 세션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긴 여름 방학인 셈입니다.
- 오리엔테이션: 서머 세션은 대략 9월 초에 모두 종강하며 이 때부터 9월 말까지, 즉 가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공식 오리엔테이션 기간입니다. 이 때부터 갑자기 학교가 엄청난 인파로 붐비기 시작하겠죠. 아마 여러분이 미국에 도착하는 시기가 이 오리엔테이션 기간일 겁니다.

6. PAL program

일종의 language partner program인데, 영어 수업을 들으실 경우 보통 이 PAL program에 등록하라고 권유를 받게 될 겁니다. 물론 등록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PAL program은 form을 적어서 내면 UC Davis의 학생 한 명과 연결해주는 것으로 그 학생과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며 영어 연습할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서는 연결만 해 주고 그 후에 친해지는 것은 자신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PAL들은 학부 학생들이며 그 학생들은 이 language partner 활동을 하고 학점을 따게 됩니다. 즉, 그 학생들은 이 partner 관련 클래스에 등록한 학생들입니다. 그 애들은 자신을 포함하여 두 명의 학생을 파트너로 두게 되고, 매주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report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꼭 참여해 보시고 서먹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서 친구도 많이 사귀어 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은 Linguistic Department (ucdavispalprogram@gmail.com)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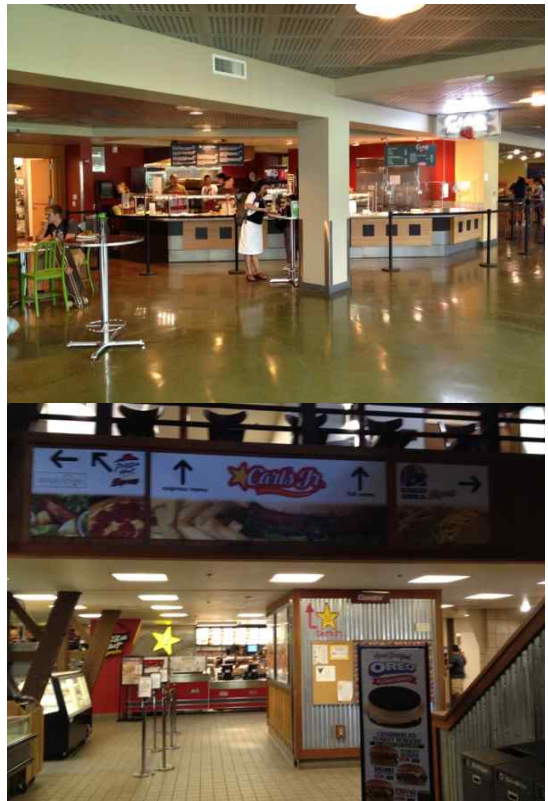
7. 식사 해결에 대해

타지에 가면 먹고 살 것이 걱정이죠? 식사 해결에 대한 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 (1) **직접 요리해 먹기:** 집에서 한국식으로 요리해서 먹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국식으로 요리하기 위한 식재료들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인 마트도 있고요. 식재료 구하기에 대해서는 다음 8장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 **교내에서 먹기:** 교내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과 주말을 제외하면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MU (Memorial Union):** MU라고 부르는 건물은 Unitrans 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데 여기에 여러 푸드 코트들은 물론 우체국, 간식 거리를 파는 가게, 커피숍, 서점, 오락실 등이 모여 있어 자주 이용하게 되는 곳입니다. 대략 5불 ~ 7불 정도면 충분합니다.
- **Silo:** 화학과 건물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건물 전체가 카페테리아이고 2층에도 테이블이 있어서 점심을 먹는 학생들 외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 곳에는 패스트푸드



드들이 많은데 피자헛, Carls Jr., Taco Bell 등이 그 예입니다. 2011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 입점한 스타벅스는 Silo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며 크레페를 파는 곳도 있습니다. 가격은 MU에서 먹을 때보다 비싼 편이고 패스트푸드이기 때문에 자주 가서 먹기에는 부담되기도 합니다.

- **Shah's Halal Food** : 2009년 가을에 혜성처럼 나타난(?) 업체. Silo 바깥에 작은 이동 부스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동차로 출퇴근을 합니다. 밥과 고기, 샐러드를 섞은 도시락처럼 생긴 것들을 파는데 메뉴의 수는 적지만 한 끼 먹기에는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 점심 피크 타임이 한참 지난 오후 2시경에도 줄이 길게 늘어선 광경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Star Ginger**: 2011년 여름에 새로 생긴 이동 트럭이며 베트남이나 타이 등 동남아쪽 음식을 팝니다. 선배적인 Shah's보다 인기는 떨어지는 듯. 저도 처음 생겼을 때 호기심에 몇 번 먹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짜고 제 입맛에는 잘 맞았습니다. 물론 이 쪽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 **DC (Dining Commons)**: 학부생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 지역에 있는 뷔페식 식당입니다. Meal plan을 가진 학생이 아니라면 들어갈 때 11불 정도의 돈을 내야 합니다. 음식 종류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일단 가면 여러 가지 음식에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 곳에 있는 디저트 중 하나 (과자나 과일 등)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 (3) **도시락**: 매번 밥 먹으러 집에 왔다갔다 하기는 귀찮고 학교에서 사 먹는 것이 부담된다면 도시락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 와서 자기 오피스에서 각자 먹습니다. 보통 점심은 다 같이 먹으러 나가는 것에 익숙한 한국 학생들이 보기에는 약간 의아한 점도 있지만 곧 이 문화에 동화될 겁니다.
- (4) **레스토랑**: 당연한 말이지만 다운 타운에 있는 레스토랑은 자주 가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작은 다운타운답지 않게 레스토랑이 여러 개 있으니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기서는 잘 알

려진 한인 식당들 몇 개만 간단하게 소개 드립니다. 이 외에도 몇 개 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 사진은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관계로 넣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한인 학생회 홈페이지에 있는 가이드를 참조해 주세요.)

- **오시오:** 캠퍼스 입구에 있는 곳으로 3번과 A Street의 교차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점심을 드시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통 한식이라기 보다는 외국인들에게도 잘 맞는 퓨전 메뉴에 가깝습니다.

- **만나:** 다운타운에 있는 한인 식당으로 3번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규모는 위의 오시오보다는 큼니다. 찾는 사람이 많은 편이며 무엇보다도 미국 내의 한인식당 중에는 드물게 한국식으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 **도시락:**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곳으로 North Davis의 Anderson Plaza (Save Mart가 있는 곳) 내에 있습니다. 도시락이라는 이름에 맞게 도시락 세트, 김밥이나 rice bowl 등의 메뉴를 주로 갖춘 곳입니다. 참고로 이 도시락에서는 한국으로 보내는 택배업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 **사랑방:** (주소 3631 Southport Dr, Sacramento, CA)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식당으로 새크라멘토에 있습니다. 약간 어둑어둑한 것이 호프집 분위기가 좀 나네요. 메뉴가 정말 많은데 어떤 메뉴를 시켜도 만족할 만 합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꼭 가보시길 권합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있다는 것. 차가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 **소나무집:** (주소 9205 Folsom Blvd Sacramento, CA) 역시 새크라멘토에 있는 한국 식당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앞의 사랑방보다 전체적으로 가격은 높은 편이지만 음식 맛이 좋아서 데이비스에서 단체로 가는 일도 많습니다. 분위기 역시 진짜 한국 식당 분위기가 나고요.

- **영동설렁탕:** (주소 8979 Folsom Blvd Sacramento, CA) 위의 소나무집과 같은 Folsom Blvd 상에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작은 식당 같지만 데이비스 한인들에게도 상당히 잘 알려진 유명한 곳이며 단골 손님들도 많습니다. 식당 이름에 맞게 설렁탕이 대표 메뉴이고 다른 메뉴들도 수준급입니다.

- **모두랑:** (주소 9545 Folsom Blvd Sacramento, CA) 마찬가지로 Folsom Blvd 상에 있는 식당이며 원래 이 자리에는 맛고을이라는 이름의 식당이 있었지만 맛고을이 문을 닫으면서 소나무집 옆에 있던 모두랑이 이 곳으로 옮겨 왔습니다.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 데이비스 한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음식에 대한 평은 좋습니다.

8. 생활정보 - 식료품 구하기

여기서부터는 식료품을 구할 수 있는 마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한인 마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한인 마트 (Kim's Mart)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위치는 4번가의 E와 F street 사이입니다. Bank of America 바로 옆이기도 하고요. 데이비스의 유일한 한인 마트이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단점이라면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라는 것. 새크라멘토 지역에 있는 큰 한인 마트와 비교하면 확실히

신선 식품들 가격이 좀 높은 것도 같더군요. 규모는 동네 슈퍼마켓 정도이지만 한국식 요리에 필요한 각종 식재료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이 곳만 잘 이용해서도 한국식으로 요리해 드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덧붙여 새크라멘토에 가면 한인 마트가 세 개 있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여기 가서 장을 봐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차를 가지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 **올림픽 마켓:** (주소 9531 Folsom Blvd,

Sacramento, CA) 구 하나 마켓. 마트 자체는 아래의 스마일 식품점보다 넓지만 파는 물건 종류는 오히려 적습니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저는 주변 미용실에 갈 때 같이 다녀오곤 합니다.

- **스마일 식품점:** (주소: 2948 Bradshaw Road Sacramento, CA) 이 곳은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물건이 뽁뽁하게 들어차 있어 파는 물건의 종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들여왔는지 궁금할 정도로요. 다른 한인 마트에서 안 파는 여러 물건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한인 마트 중에서는 한국의 슈퍼마켓 분위기와 가장 비슷합니다.

- **코리아나 플라자:** (주소 10971 Olson Dr Rancho Cordova, CA)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한인 마트. 파는 물건 종류는 당연히 가장 많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식품들도 취급하며 다른 한인 마트와 달리 채소류나 과일류 코너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에 한국 비디오를 파는 곳도 있더군요. 가까운 곳에 이런 마트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입니다. ^^ 가격 역시 굉장히 저렴한 편. 처음 갔을 때 포인트 카드를 달라고 하시면 매번 구입할 때마다 10불 단위로 1포인트씩 쌓이는데 이걸 계속 쌓으면 사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 추천하는 마트. 2012년 3월에는 근처의 빈 건물로 확장하는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기존



면적의 무려 3배가 넘는 초대형 마트로 탈바꿈하였습니다.

- (2) **Savemart:** (위치: Anderson Road와 Covell Blvd의 교차 지점에 있는 Anderson Plaza 안에 있음)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분포하는 대형 슈퍼마켓으로 식료품을 주로 취급합니다. 식재료 종류도 많고 가격도 싼 편이라 자주 이용하게 되는 곳입니다. 가끔 Safeway의 할인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스키 리프트권을 할인해서 팔기도 합니다.



- (3) **Safeway:** (North: 위의 Savemart에서 Covell Blvd를 따라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나오는 Market Place 안에 있음. South: Cowell Blvd를 따라 남쪽으로 가다 보면 있음. 참고로 Covell과 Cowell은 철자가 비슷해 자주 헷갈리지만 위치도 다르고 발음도 완전히 다른 곳이니 주의.) 전체적으로 Savemart와 규모도 비슷하고 파는 물건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가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죠. 우선 Safeway에 가시면 제일 먼저 멤버십 카드를 만드세요. 이게 있어야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Form을 작성해서 카운터에 내시면 즉석에서 카드를 만들어 주고 따로 드는 가입 수수료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파는 식품 종류는 Savemart보다 더 많은 것 같고 24시간 연다는 것, 그리고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4) **Nugget:** (위치: Pole Line Road와 Covell Blvd의 교차점에 있는 마켓 플레이스 안에 있음) 위의 Save/Safe 형제와 함께 데이비스에서 꽤 잘 알려진 마트입니다. 규모도 크고 파는 물건 종류도 정말 많고 특히 채소나 과일류, 육류가 질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파는 케이크가 화려하면서도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가격은 위의 두 곳보다 는 높으며 멤버십은 없습니다.

- (5) **Davis Co-Op:** (위치: G Street와 6~8번가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마켓 플레이스 안에 있음) 위의 마트들 보다는 규모가 작은 곳으로 주로 유기농 식품을 팝니다. 간식류도 위의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것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 곳은 일부러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유기농 제품을 사서 드시겠다는 분이 아니라면 그리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이 다른 마트에 비해 높으며 멤버십이 없다면 여기에 5%의 charge를 더 붙여서 받습니다. 하지만 장점이라면 위의 큰 마트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여러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 (6) **Farmer's Market:** (위치: 3번가의 B/C Street 주변에 있는 Central Park에서 열림) 이진 마트 건물을 말하는게 아니라 매주 두 번 열리는 장터 같은 겁니다. 농부들이 와서 자신들이 재배한 과일들을 직접 판매합니다. 시간은 매주 수요일 4시 30분 - 8시 30분, 그리고 토요일 아침 8시 - 오후 1시입니다. 단, 11월에서 2월까지의 추운 기간에는 수요일 시간이 밤 대신 오후 2시~6시로 바뀝니다 (토요일 시간은 그대로). 2012년부터는 매주 수요일 학교의 Silo에서도 장터가 열립니다.

- (7) **중국 마트 99 Ranch Market:** (주소 4220 Florin Rd, Sacramento, CA) 중국 슈퍼마켓은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규모가 가장 크고 잘 알려진 곳은 99 Ranch Market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2년 전만 해도 가장 가까운 99 Ranch가 Concord, 즉 차로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소개해드릴 필요를 못 느꼈지만 2010년에 드디어 새크라멘토에도 하나 생겼습니다. 규모도 상당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중국이나 타이완,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한 다양한 식품들을 취급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99 Ranch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웬만한 마트에서는 보기 드문 싱싱한 생선들을 팔기 때문입니다 ^^ (손질도 해서 주고 요청하면 튀겨 주기도 함). 그리고 안에 작은 카페테리아도 있어서 한 끼 먹기에도 좋고, 베이커리에서 파는 케이크들도 한국 빵집의 케이크와 비슷합니다.



- (8) **일본 마트 Oto's Japan Food:** (주소 5770 Freeport Blvd #49, Sacramento, CA) 제가 일본인에게 들어서 알아낸 곳은 Oto's 라 부르는 딱 한 곳입니다. 일본 슈퍼마켓이라는



하지만 위의 코리아나 플라자나 99 Ranch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규모입니다. 꼭 일본 현지 식품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찾아갈 필요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닫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것도 단점. Kim's Mart처럼 7시에 (일요일에는 6시) 닫습니다. 주변에 있는 일본 베이커리(사진에 나온 곳)도 묶어 다녀오시면 좋습니다.

- (9) **Trader Joe's:** 2011년에 University Mall 안에 새로 오픈한 마트입니다. 이 곳은 Safeway나 Target 같은 다른 대형 마트들보다 규모가 작지만 그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우선 식료품들의 가격이 다른 마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싸다는 점. 하지만 한 번 둘러보시면 다른 마트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특이한 품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파는 것들은 Trader Joe's에서 자체 생산된 것들이기 때문이죠. 가격이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하기 때문에 애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10) **Grocery Outlet:** 주소는 1800 East 8th Street, Suite B로 위에서 소개했던 Matthew's Mattress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Trader Joe's와 마찬가지로 2011년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규모는 Safeway보다 작아 mini-Safeway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East Davis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게 North Davis까지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 (11) **Whole Foods Market:** 주소는 500 1st Street에 있는 Davis Commons. 2012년 10월 말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위의 Nugget + Co-op인것 같습니다. 질이 좋은 유기농 식품들을 팔며 Co-op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다른 마트들에 비해 꽤 센 편입니다. 이 때문에 자주 방문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인지도가 꽤 높아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9. 생활정보 - 대중 교통

데이비스의 대중 교통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데이비스의 대중 교통은

그리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대중 교통 없이 자전거로 웬만한 곳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혹시 캠퍼스와 먼 곳에 집을 구하신다거나 데이비스 밖으로 자주 가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얘기가 달라지죠. 데이비스의 대중 교통은 YoloBus, Unitrans, Amtrak 이 세 개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Yolobus:** 그나마 가장 대중 교통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크라멘토나 우드랜드 등의 인접 도시로 연결되는 버스로 요금은 2불입니다 (학부생 한정으로 학생증을 보여주고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크라멘토 국제 공항으로도 연결되는 버스입니다. 하지만 한 시간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표를 잘 보고 나가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차가 없는 분들에게는 새크라멘토로 가기 위한 필수 교통 수단이지만 여기 저기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표시된 시간보다 버스가 늦게 도착할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한 번 타면 1회 무료 환승할 수 있으니 혹시 갈아타셔야 한다면 버스에 탈 때 transfer ticket을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http://www.yolobus.com>



(2) **Unitrans:** 학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YoloBus와 달리 노선이 학교 주변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노선 수도 많고 데이비스 내의 웬만한 곳은 다 커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도 평일에는 20분에 한 대 정도로 자주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운행하지 않으며 토요일에는 운행되는 노선이 P/Q, J, W로 제한되고 편수도 한 시간에 한 대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평일이라고 하더라도 summer session 기간이나 기말고사 기간, 방학 기간에는 역시 운행 편수가 줄어듭니다. 즉, 운행 스케줄이 학사 일정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버스 시간표가 꽤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부생은 학생증을 보여주고 공짜로 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탈 때마다 1불씩 내야 합니다. 학부생들은 그냥 공짜로 타는 것이 아니고 tuition을 지불할 때 Unitrans와 위의 YoloBus 요금까지 정액으로 같이 지불하게 됩니다. <http://www.unitrans.com>



(3) **Amtrak:** 잘 알려진 미국 철도로 데이비스에도 정차합니다. 데이비스 Amtrak 역은 2번가를 따라 동쪽으로 계속 가면 나옵니다. 차가 없으신 분들이 샌프란시스코를 갈 때

대부분 이용하게 되죠. 하지만 데이비스 역이 워낙 작다보니 데이비스에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샌프란시스코 갈 때 빼고는 이용해 본 적이 없네요. 보통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으로 예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기차는 한 시간에 한 대 꼴로 있고 요금은 대략 20불 정도로 기억합니다. 철도가 가까운 곳에 집을 잡으시는 분들의 잠을 설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데이비스로 올 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 교통이기도 합니다. 홈페이지는 <http://www.amtrak.com/>

덧붙여, 데이비스 내에 그레이하운드 버스 디포는 없습니다.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이용하려면 새크라멘토까지 가야 합니다. 단, 2011년 여름에 새크라멘토 그레이하운드 버스 디포가 대중 교통으로 접근할 수 없는 외진 곳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이용하기가 곤란해 졌습니다.

10. 생활정보 - 기타

- (1) **미용실:** 물론 외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가셔도 상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한인 미용실보다는 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인 미용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에 있는 한인 미용실은 주소가 1260 Lake Blvd이고 그 곳에 있는 작은 마켓 플레이스 안에 있습니다. 저는 앞을 지나가 본 적은 있지만 이용해 본 적은 없네요. 보통 저는 미용실을 갈 때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한인 미용실을 이용합니다. 롯데 미용실이라는 곳인데, 가는 법은 위의 8장의 올림픽 마켓 가는 방법과 정확히 같습니다. 롯데 미용실은 평소 많은 한인들로 붐비기 때문에 보통 오래 기다려야 하더군요 (예약을 하고 가기도 함). 그 외에도 새크라멘토에 한인 미용실들은 많이 있습니다.

- (2) **전자 제품:** 초반에 정착하실 때도 그렇고 전자 제품들을 구매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전자 제품은 위에 소개드린 월마트나 타겟, Ace 등에서도 구할 수 있고, 전자 제품을 취급하는 소형 상점인 RadioShack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전자 상가는 Fry's Electronics라는 곳입니다. 주소는 4100 Northgate Blvd, Sacramento, CA인데 역시 차가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IKEA 가는 방향과 같으니 IKEA 가실 때 묶어서 다녀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곳은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처럼 작은 점포가 여러 개 모인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마트처럼 엄청나게 넓은 1층짜리 상가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둘러보기도 좋습니다. 파는 물건

종류도 다양하고 안에 컴퓨터 수리점도 있어 편리합니다.

- (3) **알뜰 구매:** 뭔가 제목을 거창하게 써 놔지만, 1달러샵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1달러 샵 (Dollar Tree)은 8번 가에서 M Street와 Pole Line 사이에 있는 마켓 플레이스에 있습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Grocery Outlet 바로 옆이기도 하죠. 1달러샵 치고는 규모도 크고 쓸만한 물건들도 많아 여기를 잘 이용하시면 싼 가격에 좋은 물건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4) **운동 (체육관):** 캠퍼스 서쪽에 ARC라는 이름의 체육관이 있는데, 건물의 외관부터 눈에 띄는 이 곳의 시설은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학생은 학생증만 보여주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으며 트랙 조깅은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 라켓볼이나 배드민턴과 같은 스포츠, 암벽 등반 등의 여러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C 근처에 있는 Rec Pool에도 학생증이 있으면 무료로 입장해서 수영을 할 수 있고요. 여긴 남녀 가리지 않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체육 시설은 물론이고 큰 경기장이나 넓은 운동장 등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학기 중에는 무료이지만 Summer Session 기간에는 아무리 학생이라도 ARC에 들어갈 때 돈을 내야 합니다.)



- (5) **의료 서비스에 관해:** 이것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아프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모든 건강 검진, 특히 치과 진료는 반드시 받고 오시길 권합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면 학생들은 건너편에 있는 Student Health and Wellness Center로 가시면 됩니다. 새로 지어서 이주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도 굉장히 좋고 그 안에 웬만한 진료과는 다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 학생으로서 지불하는 tuition에 의료보험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 의료 보험에도 저절로 가입이 됩니다. 데이비스 도착하시고 얼마 후에 Anthem이라는 곳으로부터 카드가 동봉된 우편물을 하나 받으실 텐데 그게 의료보험증입니다(안 온다면 sisweb 상에 등록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상에 적힌 아이디 번호를 온라인으로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번 사용하실 때마다 사용 내역이 우편으로 배달되어 옵니다. 보험 커버 내역은 질병 종류에 따라 100% 커버 (즉, 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되는 것에서부터 전혀 커버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단, 한 쿼터에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은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12-13년 기준으로 760불) 그 이상 넘어가면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값도 보험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tudent Health and Wellness Center 안에 약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국을 찾아 가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가셔야 한다면 위에 소개해 드린 North Safeway 바로 옆에 CVS라는 pharmacy가 있으니 거기로 찾아가시거나 University Mall 바로 옆에 있는 Rite Aid로 가세요. Health Center 내에서 받은 진료비 및 약값은 나중에 mybill로 청구되어 나옵니다.

치과에 대해: 치과는 Health Center 내에 없기 때문에 따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치과 진료비는 한국에 비해 훨씬 비쌉니다. 비행기 값을 포함하더라도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는데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으신다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기서 큰 치과 치료를 받으실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치료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보험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과 진료 역시 학교 보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 커버, 90% 커버가 있고 전혀 커버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인 치과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A+라는 곳을 추천합니다 (<http://www.916dental.com>).

데이비스 한의원:



2013년 9월에 드디어 데이비스에도 한의원이 생겼습니다. 주소는 Lifeline Acupuncture & Herbs Clinic, 635 Anderson Rd. Suite 12A, Davis, CA로, University Mall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데이비스 메디컬 센터이며 학교 캠퍼스에서도 가깝습니다. 이 곳에는 병원 여러 개가 모여 있으니 처음 찾아갈 때는 표지판을 잘 보고 안 쪽으로 들어가세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 교회 분으로 데이비스의 유일한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홈페이지 <http://www.lifelineacu.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단기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서의 복잡한 보험 처리 절차 및 치료 비용에 겁을 먹고 그냥 참는 경우가 많은데, 비싼 보험 들어놓고 잘 몰라서 전혀 써먹지 못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없겠죠? 미국에서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직접 찾아서 먹어야지 절대로 누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치료는 물론 의료 보험 관련해서도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니 아픈 곳이 있으면 우선 530-756-144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6) **KGSA에 관해:** UCD KGSA는 데이비스 한인 학생회이고 대부분 UC Davis 재학중인 대학원생이나 포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생회 활동 하면서 다른 한인 학생들과 친해질 기회를 많이 만든다면 좋겠죠? 매년 학생회에서 하는 큰 행사로는 신입생 환영회 (신입 대학원생과 포닥을 환영하는 행사로, 이 때 학생회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니 꼭 참석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가을 체육대회, 신년 파티, tax seminar (세금 보고 및 환급 서류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여러 소모임들이 있으니 KGSA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을 둘러보세요.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위에 열거한 행사들도 전혀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는 즐거운 행사들이고 평소에 좀처럼 만날 일이 없는 다른 과 선배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학생회에 가입해보시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UC Davis에 한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큰 행사들은 놓치지 맙시다!

(7) **쇼핑:**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추가합니다. 사실 데이비스는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지루한 곳임이 틀림 없습니다. 쇼핑몰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데이비스 가까운 곳에 괜찮은 쇼핑몰들이 많이 있습니다.

- **Vacaville Premium Outlets:**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한 아울렛. 배커빌 아울렛은 데이비스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웬만한 유명 브랜드점이 다 입점해 있으며 East Plaza와 West Plaza로 나누어져 있어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옷 구경을 하지 않고 그냥 각 매장들 앞을 따라 걸어서 도는데에만 한 시간이 걸릴 정도죠.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월마트도 있으며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레스토랑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말쯤에 시간을 내서 꼭 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차가 있으면



편하겠지만 고맙게도 데이비스에서 대중 교통이 연결됩니다. MU의 버스 정류장에서 Yolobus 220번을 타시면 배커빌 아울렛까지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 **Arden Fair Mall**: 새크라멘토에 있는 대형 쇼핑 센터로 역시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배커빌과 달리 모든 점포가 실내에 모여 있습니다. 단, 이 곳은 차가 없이 가기는 매우 번거롭습니다. 대중 교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시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버스를 계속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가는 데에만 2시간 가까이 걸림).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평은 위의 배커빌보다는 한 수 아래인 것 같습니다. 쇼핑물 홈페이지가 있으니 여기서 정보를 얻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http://www.ardenfair.com/>)

11. 마치며

이것으로 데이비스 생활 정보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원본은 60쪽이 넘는데 사진을 빼면 거의 1/3 정도로 분량이 줄어버렸네요. 앞의 머리말에서 말씀 드렸지만 저는 아직 미혼인 대학원 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 특히 미국에 처음 오시는 미혼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고 기혼자 분들을 위한 정보 (예를 들면 육아나 초등 학교를 비롯한 교육 환경)를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에 밝으신 분들께서 교회에 많이 계시니 교회 모임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가이드가 데이비스에 처음 오시는 새가족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더 자세한 버전은 한인 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2013년 9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 yeovsr8@postech.ac.kr 혹은 highelf0329@gmail.com으로 질문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제 UC Davis 이메일 주소를 아신다고 해도 그 주소로는 보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팸으로 걸려져서 제가 못 읽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글로 쓴 메일은 될 수 있으면 위의 postech 계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럼 모두 성공적인 데이비스 생활 하시길 기원합니다!

- 리엘 -